



연구원 30주년, 그리고 연구방법의 변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

tory1052@klri.re.kr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법연’에 1990년 개원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연구방법이나 발간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원 이후 법제연구원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1990년 소련의 해체에 대응한 ‘소련의 헌법위원회법’, ‘소련의 토지기본법’ 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쓰레기 관리법제’ 연구, 2010년 녹색성장 이슈 관련 ‘녹색성장연구’ 사업 시작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형태의 발간물도 계속 확대·발간하여 왔다.

사회적 이슈 관련 보고서 등 목록

	사회적 ISSUE	관련 보고서	신규 발간물
1990	소련 붕괴	蘇聯의 協同組合法, 貸貸借保護法, 헌법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절차법, 國家非常事態法 등	연구보고
1991		蘇聯의 檢法,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외자도입법제 등	
1992	절대농지제도	농지제도의 법적정비	국내입법의견조사
1993			외국법제동향분석, 현안분석
1994			북한법제분석
1995	쓰레기 종량제 시행	쓰레기 管理法制, 쓰레기 종량제	
1996			입법의견조사, 최근외국입법동향
1997	IMF		행정법제분석
1998		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利子制限法 폐止에 따른法制改善方案, 각국의 도산법 등	경제법제분석, 사회문화법제분석, 국제법제분석

연도	사회적 ISSUE	관련 보고서	신규 발간물
1999	의약분업	Y2K 관련 연구(2000년 연도표기문제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2000	통합방송법, 고령화사회 진입	의약분업의 법적문제, 컴퓨터 2000년 문제, 통합방송법 제정입법의견,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등	
2001		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인터넷 방송법제의 입법방향,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등 인터넷 관련 법	
2004		각국의 고령사회법제 연구	
2006			비교법제연구
2007	리스본조약 채택, 태안 기름유출사고	유럽법의 발전과 유럽연합회원국의 법질서 변화	법령용어연구, 입법평가연구, 재정법제연구
2008	호주제 폐지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시리즈	
2009			법제교류연구, 입법평가 이슈페이퍼
2010	G20 정상회의,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통상분야 주요 현안 검토	녹색성장연구,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
2012	한미 FTA,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시리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법제분석지원연구, 이슈페이퍼
2013	남양유업 사태, 경제민주화 논쟁		해외한국법연구
2014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기후변화법제연구, 지역법제연구

	사회적 ISSUE	관련 보고서	신규 발간물
2015			통일법제연구
2016			글로벌이슈페이퍼
2017			현안분석 이슈브리프
2018	헌법개정 논의		현안대응 이슈페이퍼, 헌정제도 연구, 이슈페이퍼

표 작성: 김미혜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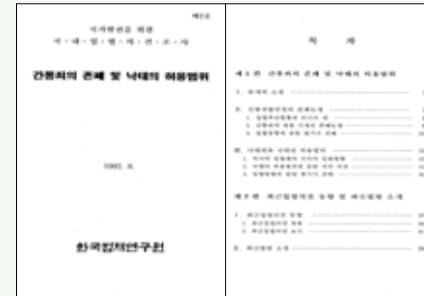
특히, 2006년 이후에는 기존의 기본과제 중심의 연구보고서 작성 방식에서 비교법제연구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일반사업으로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사업을 통한 각종 발간물들이 다양하게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슈페이퍼, 이슈브리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짧지만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발간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하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위해 김미혜 전문연구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I. 연구보고서

연구원 연구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90년부터 연구보고서는 시대의 이슈와 장기적인 법제 전망, 법학 기초이론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연구과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관습법조사연구 예비조사편'이다. 위 연구를 비롯하여 입법의견조사연구覲, 국민법의식 조사연구訴, 최신 입법의견 동향觀, 訴, 观, 觉 등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조사연구가 시행되었다.



위 보고서들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에도 이미 입법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한 연구보고서들이 다수 발간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입법평가사업을 통해 조사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II. 법전·사전 편찬 등

전통적인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법전이나 사전을 연구, 편찬하는 방법으로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는 '93에 발간된 '대전회통大典會通 연구'로 조선시대 법전에 대한 국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단순 국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하여 그 의의가 더욱 커던 연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95에 수행된 것으로 이 연구 이외에도 법령 용어에 관한 연구는 수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법령 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의 기초 연구로 진행된 것이다.

III.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은 연구원에서 일반연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연속간행물로는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들 수 있겠다.



2007년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많게는 10개호부터 적게는 6개호까지 많은 연구자, 담당자의 손을 거쳐 발간되어 왔으며, 해외 법제조사가 필요한 수요처의 요청을

받아 각 국의 외국법제조사원을 통해 신속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특히 그 호응과 활용이 높았던 간행물에 해당한다.

'최신외국법제정보'가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조사 방식이었다면,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간행물로 2004년 3월 1호가 발간되어 2008년 10월 9호로 마감한 아시아법제연구가 있었다.

아시아법제연구는 당시 연구가 부족하였던 아시아 법체계 및 법제동향을 조사하여 발간하는 형식이었고 실제 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ALIN의 회원국 회원기관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IV. 학술지

연구원의 대표적인 학술지로는 '91년 창간되어 2019년 12월 제57호까지 발간이 계속되고 있는 법제연구와 2009년 6월 창간되어 2019년 10월 제16호까지 발간 중인 입법평가연구, 그리고 2012년 창간되어 2019년 11월 Vol.9 No.2까지 발간된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KJLL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학술지 역시 원고를 기고해 준 저자 외에 발간의 기획, 원고모집, 심사, 수정, 편집 등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 긴 시간 동안 끊이지 않게 발간을 계속해 온 많은 연구자, 담당자들의 수고가 있었다.

V.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수행 방식이다.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과 짧은 보고서 형식, 가독성 높은 이미지 활용,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의 장점으로 깊은 연구를 통한 보고서와 다른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점차 그 발간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30년간 계속 연구를 수행하여 온 많은 선배 연구자님들과 연구원을 지켜온 많은 실무 담당자분들의 노력으로 연구보고서 및 발간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이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다. 향후의 연구원 역사의 흐름과 발전에 따른 연구수행 방식의 계속적인 변화 발전은 이제 우리의 뜻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설명한 몇 가지 연구방법이나 발간형식의 변화는 연구원 전체 보고서나 발간물의 일부일 뿐 방대한 다른 연구결과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